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inside **BIFC**

권두칼럼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전문가 인터뷰

핀테크 스타트업 「지구인」 대표 조금택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소개

inside **FINANCE**

국내 금융제도 현황

청년도약계좌 출시

특화금융시장 동향

2023년 파생상품시장 전망



Vol. 30

www.kbfc.or.kr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CONTENTS

inside BIFC

- 04 권두칼럼
한국예탁결제원의 새로운 도약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 06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 10 전문가 인터뷰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지구를구하는인간(지구인)
- 핀테크 스타트업 「지구인」 대표 조금택
- 14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 16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소개
-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팀장 최흥규

inside FINANCE

- 18 국내 금융제도 현황
청년도약계좌 출시
- 22 특화금융시장 동향
2023년 파생상품시장 전망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전 균

inside APPENDIX

- 26 부산 일반 현황
- 27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28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처 부산국제금융진흥원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47-9052 FAX. 051-633-0398 www.kbf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51. 636. 1215 www.ggad.co.kr





한국예탁결제원의 새로운 도약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 가까이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증권의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금융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변화하는 금융니즈를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격렬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4차산업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접목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디지털화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도입하기로 하고, 2023년 2월 6일에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비방안에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의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 증권의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발행할 토큰 증권의 양도 가능성을 판단하고, 투자자에 배정된 토큰 증권의 총수량을 발행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발생한 경우 정정토록 하거나 전자증권법상의 절

차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하는 총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토큰 증권이 국내에 원활히 도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019년 9월에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이를 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도난 및 분실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여, 당시로서도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이제, 그 혁신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등장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재산인 증권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일본·싱가폴 등의 주요 선진국은 국민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채, 즉 저축국채(Savings Bond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채무불이행(Default Risk)이 없는 우수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는 재정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용 국채’라는 이름으로 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의 도입과 관련된 국채법 개정안은 2023년 3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국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고,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를 두고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개인별 매입액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형태로서,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이러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등록 및 권리관리에서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조건 등을 접수한 후 이를 쏠 국민에게 고지하고, 판매대행기관을 통하여 국민이 청약한 내역을 바탕으로 전자증권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여 관리하며, 만기·중도상환시 원리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국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밝혀진 한 가지 사실은, 국채의 수요기반이 견고한 국가들이 위기상황에서도 대처능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이 높고 선진화된 국채시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국채를 글로벌 투자자가 국채투자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국채지수[런던증권거래소 산하의 FTSE Russell社가 산출하는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하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의 WGBI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투자자가 국내에서 상임대리인이나 보관기관을 선임하여 투자하는 불편한 방법을 대신하여, 국제적으로 채권을 유통하고 결제하는 국제예탁결제기관(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우리나라 국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예탁결제기관 중 하나인 Clearstream은 이미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유통할 수 있는 적격외국금융기관(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자격을 국제청으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19조의3」 및 「법인세법 제93조의3」을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하여 외국인이 투자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최대 증권예탁결제기관인 미국의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가 지난 2023년 5월 9일에 5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 6일에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지원해왔고, 때로는 선진적인 금융인프라를 선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견인하여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한국예탁결제원의 새로운 도약의 길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만으로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NEXT KSD 추진단」이란 명칭의 본부급 T/F를 신설하여, 미래 50주년을 대비하여 회사 DNA를 재설정하고 미래성장엔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한국예탁결제원은 푸른 하늘 아래 은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활기찬 부산의 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고객’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인 ‘부산’이 있기에, 부산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플랫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아·태지역 예탁결제회사협의회(Asia-Pacific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Group) 총회(제24차)를 최초로 부산에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2021년에 약 19조원, 2022년에 약 13.2조원의 증권거래세 및 원천세를 납부하여 부산시의 세수 확대에 공헌하며,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확충하여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의 금융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K-Camp 부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부산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출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 중 ‘글로벌금융중심지 기능강화’, ‘정책금융중심지 기반구축’, ‘디지털금융 역량강화’, ‘녹색 금융 성장 기반구축’을 선도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중심지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면서, 당면한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추진과제 마련

금융위원회는 6.21일(수)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이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은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가상자산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도쿄는 거시경제 성과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하락하는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핀테크, 벤처캐피탈), 프랑스 파리(지속가능금융) 등은 특화형 금융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다.



추진과제 주요내용

대과제 1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
 - 금융회사가 디지털화·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 현재는 금융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
 -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는 규율체계 정립
- (금융의 디지털 전환 촉진)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
 -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 등 금융회사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공,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 구축 등 내실화 추진
- (핀테크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추진
 - 글로벌 진출 기조에 따른 민간 모험투자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 추진 시 정보·인력 매칭 지원

대과제 2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외환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 (디지털 신산업 제도화) 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증권거래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 가상자산은 이용자보호 필요성 및 글로벌 규제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율체계 마련 추진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
 -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빅데이터 확보 지원 등 AI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망분리·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율보안체계로 전환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
 -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하고, ESG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외환제도 개선)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고, 과도한 외환거래 규제를 혁신
 -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게도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사전신고제 등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초래하는 거래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


대과제 3 자본시장 국제화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정비하고 정보접근 환경 개선
 - 약 30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및 장외거래 사전심사 완화 등 거래 편의성을 제고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금융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및 기업의 영문공시 지원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절차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및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 혁신기업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하도록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現 규제샌드박스) 제도화 추진
 - 대체거래소(ATS)를 설립을 통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증권거래 인프라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 공모펀드 제도개선을 통해 간접·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지원
 -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경험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

대과제 4 금융중심지 내실화

글로벌 금융강국 및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지원 전략,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등을 병행 추진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국내 금융사의 해외 영업기반 및 수익비중 확대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 금융위내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설치하여,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일괄 발굴 및 개선
 -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진출 금융회사, 현지 금융당국 및 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해외 금융사 국내유치 지원) 외국계 금융회사·금융인의 경영·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노력 및 금융중심지 홍보를 강화
-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 서울, 부산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별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서울 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핀테크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서울 핀테크랩) 창업 7년 내 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제2서울핀테크랩) 창업 3년 내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전담 ·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시 창업 거점시설 연계 현장실무인력 양성 등 ·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추진 *지방세 감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핀테크기업 지원 등
부산 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인프라 및 금융생태계 강화 *BIFC 주변 금융권 데이터센터 구축, 부산형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등 · 해양특화금융 활성화 *해양진흥공사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 BIFC 3단계 공간(25년말 완공)에 디지털금융기업을 집적, 블록체인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민간주도형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조성 등

금융중심지 정책 비전·체계도

비 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중 점 전략

-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
- 글로벌 스탠다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금융사 유치 지원

추진 과제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지원
- 핀테크 지원 강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 외환제도 개선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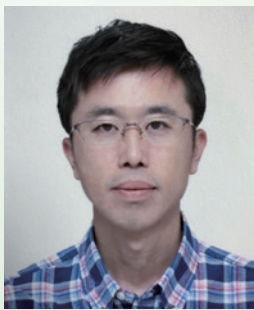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금융중심지 내실화

- 금융사 해외진출·투자 지원 강화
-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추진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지구를구하는인간(지구인)



핀테크 스타트업 「지구인」 대표
조금택



“지구인”을 소개해주세요.

지구인은 탄소 금융 솔루션 기업으로, 부산 핀테크 허브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데이터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발적 탄소상쇄권 유통 인프라를 포함한 탄소 금융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의 이해당사자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이고, 지구인 모두가 노력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지구를구하는인간, 지구인으로 지었습니다.

지구인의 사업이 시작된 배경에는 기후 변화 전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개인의 역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및 솔루션이 구비되지 않은데 따르는 대응체계 부재라는 문제 파악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높아진 환경 부합 기준과 정부의 배출량 할당 제도,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다양한 내외부 규제요인을 준수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상쇄권을 구매하여 자체 배출량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탄소시장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출권을 재판매하여 발생하는 더블카운팅 이슈와 탄소배출권의 품질 및 거래 상대방 검증 이슈 등이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어 자발적 탄소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자발적 탄소상쇄권 시장이 블록체인 인프라로 전환되어 탄소상쇄권의 발행, 등록, 거래, 폐기 등 유통과정의 전 단계를 거래 단위별로 기록하여 투명하고 간편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은 이러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시장 참여자가 되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연결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유통 인프라를 제공하며 쉽게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도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인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필수불가결한 탄소 자산 부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여 탄소 금융의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탄소시장,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거래 등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생소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탄소시장’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시장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시장으로 나뉩니다. 한국의 규제시장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연초에 환경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면 개별 기업은 할당된 탄소배출권의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할당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초과분을 상쇄하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시장은 민간분야에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생성 프로젝트 개발자가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UN을 포함한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탄소저감 및 제거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아 공인된 탄소 배출 상쇄권을 생성합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모습

이렇게 생성된 탄소배출 상쇄권은 기업, 기관, 개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에 의해 유통되고 거래됩니다. 정부에 의해 할당량의 총량이 고정된 규제시장의 탄소배출권과 다르게 자발적 탄소배출 상쇄권은 ESG 또는 기후변화 전환위험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탄소배출 상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솔루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석유화학 기업인 Shell 그룹이 Boston Consulting Group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20억 달러로 평가되는 자발적시장 규모가 2030년 최대 400억 달러까지 약 20배 가량 성장한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발적시장에서의 발전가능성 및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대책입니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글로벌 기업 등이 ESG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별 탄소중립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탄소 제거 및 저감 설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공인된 탄소(배출)상쇄권을 구매하여 최종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노력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의 하나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및 탄소상쇄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인은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요?

지구인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포함하여 벅스코에서 열린 여러 박람회를 자발적으로 탄소감축행동에 참여하신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화에 기여했습니다. 지구인은 이를 “넷제로 경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자발적 탄소배출상쇄권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생활 속에서 넷제로를 실천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는 탄소 대체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자산 부채 관리 서비스, 탄소배출량 목표 관리 서비스, 내부 탄소 가격 산정 서비스, 탄소배출상쇄권 품질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전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경영을 도와주는 재무관리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산금융중심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금융은 파리협정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의 방법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후금융은 투자, 대출, 출연 등을 통해 전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113개의 금융기관이 ‘2050 탄소중립’을 지지하고 기후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석탄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후금융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행동으로서, 기후금융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ICT 등의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핀테크 투자 확대, 규제혁신,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등 핀테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라는 비전을 가진 부산시가 기후금융 및 탄소금융의 중심지로 글로벌 금융에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하면 좋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부산시는 최근 탄소중립 포털인 ‘넷제로 부산’을 개소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행동양식을 주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노력으로 부산시 자체적인 내부 탄소가격제도(Internal Carbon Pricing)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거나, 자체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자발적 탄소배출상쇄권 매입 등 여러가지 탄소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의 탄소 중립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선두에서 날을 기대합니다. 



BFC NEWS

1

BIFC 금융강좌

- 교육대상** 일반시민 및 대학(원)생
- 운영기간** 2023. 1~12월, 격주 수요일 2시간(14:00~16:00)
- 주요내용** 부산지역 내 13개 주요 금융 관련 기관들이 국민들의 금융지식 및 자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공동 운영하는 금융강좌
- 참여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기술보증기금, 부산국제금융연수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BNK부산은행,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2

부산금융박물관로드

- 운영기간** 매주 목요일 및 금요일
- 투어장소**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한국은행 화폐전시관,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체험관
- 주요내용** 어린이 및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금융지식과 자본시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젝트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의 금융관련 홍보·박물관 4곳을 연결한 체험학습 금융프로그램



3

2023년 제1회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개최

- 일 시** 2023. 2. 24.(금) 12:00
- 참 석 자** 부산시 및 17개 부산이전공공기관 (부)기관장 등
- 주요내용** 부산금융중심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조 및 현안사항 공유



4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3. 4. 24.(월) 14:00 ~ 16:00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관/주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희곤/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및 글로벌 부산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



5

제2기 부산금융중심지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일시/장소** 2023.5.2.(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53층 회의실
- 활동기간** 2023년 5월~9월(5개월)
- 주요내용**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다양한 SNS플랫폼을 활용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의 대내외 홍보활동 지원



6

네트워크 협약식

- 협약명** 부산금융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풍수해보험 지원 ESG 사업」 업무협약
- 체결일자** 2023. 6. 22.(목)
- 협약기관** 부산광역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주요내용** 금융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이전 공공기관 ESG 경영 실천 및 지역 핀테크 기업 육성 협력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소개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팀장 최흥규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 이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 중심에서 자산운용시장, 단기금융시장, 증권파이낸싱 및 글로벌 증권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전자등록 등을 통해 6천4백조 원에 이르는 증권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증권상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혁신금융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50년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하여 2023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 마련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우리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

2 토큰증권 도입 지원 및 수용체계 마련

정부의 토큰증권(ST) 정비방안 발표에 따라 우리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의 등록심사와 발행 총량 관리 업무 등을 수행

토큰증권 제도화를 지원하고, 토큰증권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및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

3 차세대시스템 구축

혁신금융 서비스 출현 대응 및 스마트 근무환경 조성 등 내·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

4 혁신금융상품 전자등록 확대 수용

정부 정책지원 및 신규시장 확장을 위하여 조각투자상품의 신탁 수익증권 전자등록 수용 확대 및 제도화 지원

둘째, 정부의 정책사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1 외국인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

국채시장 선진화 및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국채·통안채 투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관련 연계 시스템 구축

2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시스템 구축

국채법 개정에 따라 발행대금 납입·관리 업무 등 사무처리 기관으로서 세부 업무 수행방안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3 유동화증권 정보 확대 수용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정보 확대 수용을 위한 관련 TF에 참여하고, 하위법령 개정 지원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내부 규정체계 및 관련 시스템 구축

4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추진

RFR 중심으로 지표금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책당국의 추진 활동에 맞추어, KOFR 관련 파생상품 시장 조성 및 관련 현물 상품 개발

끝으로, ESG 경영 실천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합니다.

1 경영관리 조직을 개편하여 ESG경영체계를 강화

ESG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ESG경영부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산하에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ESG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

2 친환경 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상쇄 사업,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후원 및 전사 탄소중립 그린 캠페인 실시 등 탄소중립 사업을 실천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3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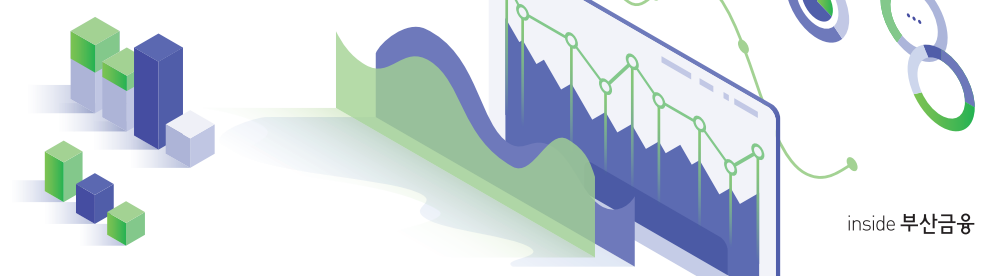
자본시장에서 얻은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KSD나눔재단을 통한 취약계층지원, 금융교육 및 장학사업 실시와 회사 전담조직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4 동반성장 및 상생의 기회 제공

중소규모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K-Camp, BIGS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

5 거버넌스 선진화 및 청렴KSD 추구

끝으로, 책임경영 강화,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및 윤리경영의 내재화 등을 통해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고 지속 실천 



청년도약계좌 출시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확인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를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참 고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			기여금 한도(月)
		본인 납입한도 (月)	기여금 지급한도 (月)	기여금 매칭 비율	
2,400만원 ↓	1,60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	3,600만원 ↓	7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6,300만원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2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 11개 취급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사-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연 6.86~8.05%

참 고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¹

(3년 고정기간 중 은행 제공금리²
기본금리 연 4.5%
+ 소득 + 우대금리 연 0.5%³
+ 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⁴)

일반적금¹

(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⁵
세전 3.59%(세후 3.04%)

납입액 4,200만 원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세전)
534~640만 원

+

은행이자(세전)
820~946만 원

+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세전)
160만 원

-

이자소득세
0원
(비과세)

-

이자소득세⁶
126~146만 원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 원

- 1 매월 초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3.5%) 가정
- 3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우대금리(가입시기별·은행별 상이할 수 있음)
- 4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음
- 5 '23.4월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 6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¹

(3년 고정기간 중 은행 제공금리²
기본금리 연 4.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³)

일반적금¹

(과세상품)
(금리 연 7.01~8.19%)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⁴
세전 3.59%(세후 3.04%)

납입액 4,200만 원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세전)
480~587만 원

+

은행이자(세전)
748~874만 원

+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세전)
153만 원

-

이자소득세
0원
(비과세)

-

이자소득세⁵
115~134만 원

만기시 수령액
4,833~4,940만 원

- 1 매월 초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3.5%) 가정
- 3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음
- 4 '23.4월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 5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2023년 파생상품시장 전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전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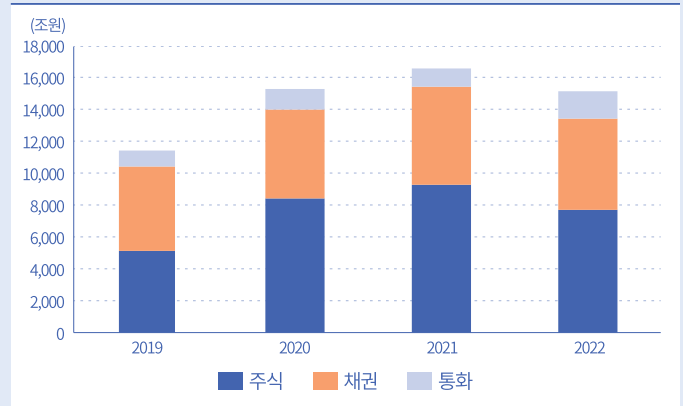
들어가며

2022년은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가속과 지정학적 위험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COVID-19 사태 이후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시기이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채권시장은 지난 수십년의 저금리 기초에서 벗어나 소위 'New Normal'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자산별 변동성은 모두 우상향하였다. 주식과 채권의 동반약세와 강달러 환경이 신용위험을 증폭시켰다. 자산시장의 약세와 변동성의 고조가 일상화된 2022년에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은 자산별로 상이한 전개방향을 보였다.

1 장내 파생상품시장

2022년의 변동성 높은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의외로 정체된 모습을 연출하였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2022년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경 5,139조원으로 2021년의 1경 6,688조원 대비 9% 감소하였다. 주식(주가지수 포함)파생상품의 2022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7,66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채권 파생상품의 2022년 거래대금은 5,816조원(전년대비 6% 감소)이다. 통화파생상품시장은 원/달러를 비롯하여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2021년 대비 +44% 증가한 1,658조원이 거래되었다. 특히 미국달러선물 거래대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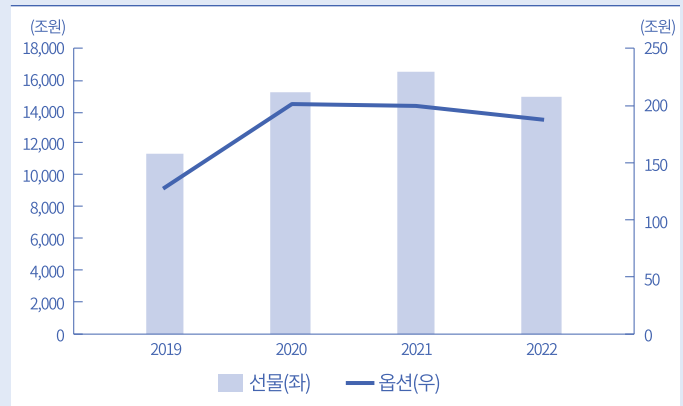
그림1. 장내 파생상품시장 자산별 거래규모



자료: 한국거래소 통계월보

국내 장내파생상품의 상품별 거래규모를 보면, 선물상품은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주식(주가지수 포함) 선물의 거래감소가 결정적이었다. 옵션상품은 2020년 이후 정체상태이다. 2022년 변동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주가지수 포함)옵션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옵션상품의 부진으로 연결되었다.

그림2. 장내 파생상품시장 상품별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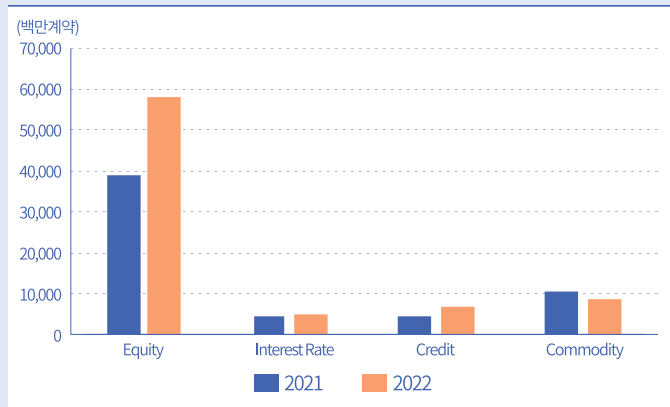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통계월보

국내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대금 위축은 현물시장의 위축에서 비롯되었다. 국내 주식시장은 2021년 6,766조원 거래되었지만, 2022년에 3,191조원으로 거래규모가 급감하였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동반 약세조정과 변동성 상승으로 인해 주식현물시장이 위축되었으며, 파생상품시장도 동반하여 거래규모가 감소하였다. 채권현물시장 역시 국채의 장외거래 규모가 2021년 2,569조원에서 2022년 2,123조원으로 17% 감소하였다.

현물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시장 유동성의 감소도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정체에 기여하였다. 주식거래 목적의 고객예탁금은 2021년 일평균 66.6조원에서 2022년 56.7조원으로 15% 감소하였다. 또한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예탁하는 파생상품예수금은 2022년 일평균 11.9조원으로 2021년 수준에서 늘어나지 못하였다.

세계거래소연맹(WFE)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장내파생상품 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과 변동성 상승으로 헤지와 방향성 거래가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인도 등 신흥아시아 거래소의 옵션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Commodity 상품은 거래가 부진한 반면 주식과 통화상품의 거래가 급증하였으며, 채권상품은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림 3. 글로벌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추이



자료: 세계거래소연맹

2 장외파생상품시장

2022년 국내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신용제외)는 2021년의 1.7경원에서 2.4경원으로 41% 증가하였다. 이자율과 외환상품에서 거래가 폭증하였는데, 이자율스왑과 이자율선도는 각각 2021년 대비 76%와 124% 증가하였다. 외환선도와 통화스왑 역시 2021년 대비 23%와 57% 늘어났다. 2022년 세계 채권시장의 금리 급등과 강달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반면 주식상품은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량 감소와 주식시장의 침체가 배경이다. 특히 주식스왑은 2021년 140조원에서 2022년 109조원으로 22% 감소하였다. 파

생결합증권의 백투백(B2B) 거래 주요수단인 주식스왑 거래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감소와 연동하여 2022년에 위축되었다.

표 1.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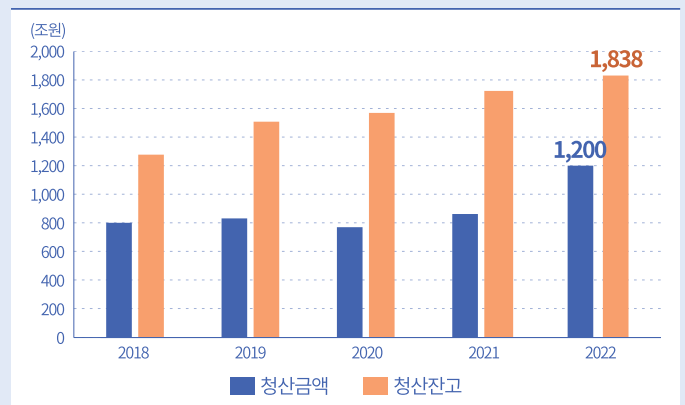
(단위:조 원)	주식	이자율	외환	상품	전체
2019	194	3,706	13,295	20	17,215
2020	193	3,524	13,250	26	16,993
2021	194	4,121	13,776	43	18,134
2022	213	7,255	17,030	49	24,54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은행이 거래규모와 거래잔액 측면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신용제외)에서 은행은 9,667조원, 증권은 1,993조원을 차지하였다. 2021년말 대비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잔고는 6% 증가에 그친 반면 증권은 +14% 늘어났다. 주식과 채권시장은 물론 외환시장까지 증권사의 업무진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활용도 신장하였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기관(CCP)에서 원화이자율 청산 규모는 2022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200조원을 기록하였다. 청산 잔고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2017년에 청산규모 1,000조원을 상회한 이후 5년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이자율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2022년에 급증하는 가운데 이자율스왑을 통한 헤지거래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CCP를 통한 중앙청산도 사상 최대를 달성하였다.

그림 4. 원화이자율스왑 청산금액과 잔고



자료: 한국거래소

특화금융시장 동향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TR(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 TR은 2021년 4월에 업무를 개시하여 이자율과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집계하였고, 2022년부터는 주식과 신용 등을 포함한 모든 상품군으로 보고대상을 확대하였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주식과 신용, Commodity의 보고건수가 증가한 배경이다.

표 2. KRX-TR 장외파생상품 자산별 잔고건수

(단위:건)	Interest Rate	F/X	Equity	Credit	Commodity
2021년	456,467	182,750	276	21	35
2022년	467,313	192,126	75,508	1,363	2,941
증감	10,846	9,376	75,232	1,342	2,906

자료: 한국거래소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 역시 외환과 이자율상품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외환상품은 2021년 대비 3조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이자율상품은 15조달러가 늘어났다. 반면 주식상품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표 3.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Notional amounts outstanding)

(단위:십억)	F/X	Interest Rate	Credit	Equity
2020 1H	93,811	495,141	9,050	6,457
2020 2H	97,549	466,494	8,649	7,084
2021 1H	102,471	488,098	9,121	7,506
2021 2H	104,249	475,271	9,061	7,280
2022 1H	109,587	502,586	9,542	6,988
2022 2H	107,576	490,626	9,941	6,919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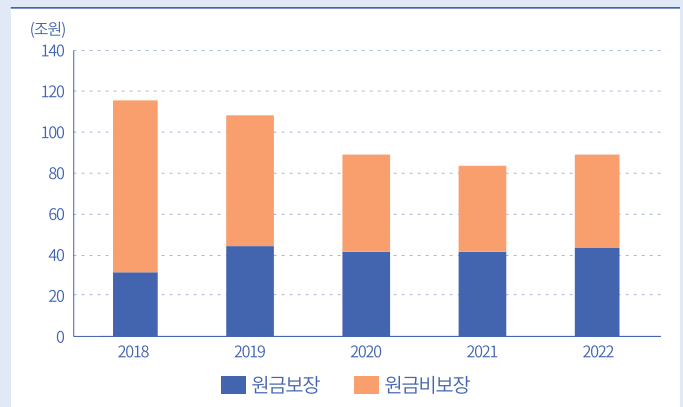
2022년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는 돌발 변수로 인해 시스템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자율스왑과 연계된 영국 연기금의 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 사태이다. 2022년 하반기에 영국 정부의 돌발적인 재정정책 제시로 영국 gilt채가 급등하였으며, 연쇄반응으로 영국 연기금의 주요 투자전략인 LDI에서 담보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자율스왑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였던 영국 연기금

은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마진콜(Margin Call) 사태를 경험하였고, 급기야 영국 정부의 내각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3 구조화상품시장

ELS·DLS으로 대변되는 파생결합증권은 2022년에 74조원 발행되었다. 2021년의 89.1조원에 비해 17% 감소한 발행 규모로서,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기피로 귀결되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감소하였지만,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원금비보전상품 중심으로 미상환 잔고가 늘어났다. 파생결합증권의 미상환잔고는 2021년말 83조원에서 2022년말 8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물량이 감소할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입장에서는 헤지비용의 증가와 테일리스크(Tail Risk) 노출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ELS 마진콜 사태이후 금융당국의 운용규제 강화 등으로 2022년에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유동성/신용위험이 불거진 사례는 없었다.

그림 5. 원금보전형 & 원금비보전형 파생결합증권 잔액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4 2023년 시장전망과 점검포인트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변동성의 진정을 경험하고 있다. 시장금리의 하락 반전을 계기로 기술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고, 경기의 저점 임박 기대감으로 일부 경기순환 섹터가 강세를 연출하고 있다. 다만 'Easy Money'가 사라지고 고물가/고금리 환경으로 경제체질은 취약해지고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내외 은행시스템에서 균열이 발

생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 자산시장에서는 연쇄적인 변동성 확산이 나타날 위험도 존재한다. 경제전반의 취약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의 빈번한 Spike가 발생할 수 있어, 2023년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2022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2023년 5월말 현재 5,800조원이 거래되었다. 2022년 연간 거래대금의 39% 수준이다. 시장금리의 안정과 주식시장의 반등, 강달러의 진정 등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거래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반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의 강도와 시기, 약한 고리의 신용위험 고조, 각국 중앙은행의 각자도생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고조 등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시장대응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경제적 장점이 부각될수록 투자자의 수요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거래소는 2023년 사업계획서(“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 2023.1 발표)에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① 파생상품시장의 조기개장과 ② 위험헤지 수요 충족을 위한 파생상품 라인업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해외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이 조기개장(15분~30분) 또는 24시간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 확보가 유리하다. 국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시장도 2023년 7월말부터 현물시장의 개장(오전 09:00)시간보다 15분 빨리 개장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의 조기개장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 결과를 선행적으로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시장의 개장 초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파생상품 라인업 확충에는 초장기국채 선물 신규상장과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기초자산 확충 그리고 KOSPI200 위클리옵션 추가상장 등이 제안되었다. 초장기채 발행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장기국채 선물의 신규상장은 헤지거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170여개의 기초자산을 시장대표지수를 커버할 수 있는 수



준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현재 목요일 만기상품이 상장되어 있는 KOSPI200 위클리옵션은 향후 월요일 만기를 추가 상장하여 주요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대책은 시장의 역동성과 유동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시장의 혼란이 재차 가중되면 파생상품 관련된 시스템 위험이 불거질 위험도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거래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분기에 발생한 외국계 증권사발 국내주식의 차액정산결제(CFD)의 사태는 2021년의 아케고스(Archeegos Capital) 헤지펀드 사태 당시의 “레버리지를 수반한 장외파생상품(CFD, TRS) 거래의 담보부족에 따른 대규모 청산매물 출회”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금번 사태는 CFD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노출된 사례이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케이스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CFD 사태를 수습하면서, ① 잔고와 TR보고 등 정보투명성을 제고하고 ② 한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③ 전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신설하는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금번 CFD 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관련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

부록 INFO

- 부산 일반 현황
- 부산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부산 일반 현황

	기준	단위	통계	전국대비 비중(%)
GRDP 규모				
부산		십억원	98,652	4.8
부산·울산·경남	2021년 잠정치,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288,409	13.9
전국		십억원	2,076,254	100.0

부산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0.5	1.2
광업·제조업		%	16.4	2.8
건설업	2021년 잠정치, 지역내총부가가치	%	5.8	4.9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75.8(7.1)	5.8(5.2)
전기가스증기업		%	1.5	6.3

부산·울산·경남 GRDP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1.8	12.5
광업·제조업		%	35.7	17.4
건설업	2021년 잠정치, 지역내총부가가치	%	5.0	12.0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55.7(4.9)	12.0(10.1)
전기가스증기업		%	1.8	20.5

컨테이너 처리량

부산	2022년 중	천TEU	22,078	76.6
전국		천TEU	28,822	100

거주환경(부산)

면적	2022년 말	km ²	770	0.8
인구	2022년 말	명	3,367,246	6.5
기온	2022년 평균	°C	15.4	
강수량	2022년 평균	mm	991.9	

외국인관련(부산)

외국인 등록인구	2022년 말	명	49,434	
외국인 학교	2022년 말	개	6	
외국인 관광객	2022년 말	명	482,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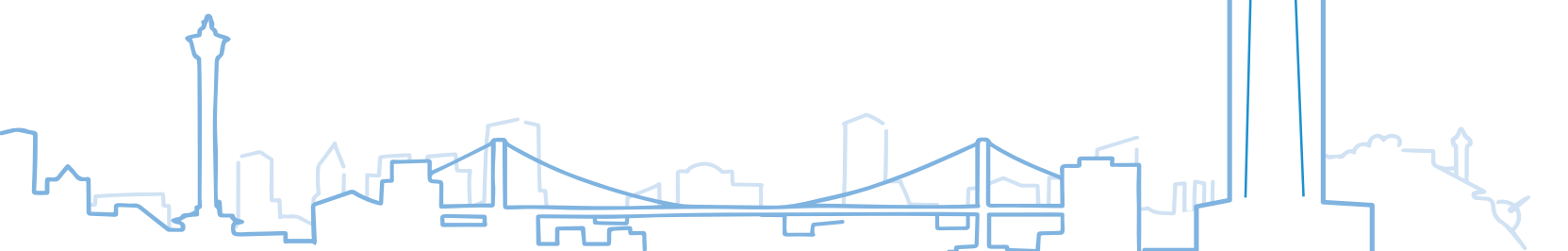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¹⁾

단위: 개

기관명	2021년말	2022년말	증감
합 계	1,977	1,927	-50
예금은행	495	477	-18
일반은행	379	364	-15
시중은행	184	173	-11
우리은행	44	42	-2
SC제일은행	13	12	-1
KB국민은행	53	51	-2
한국씨티은행	2	2	0
신한은행	35	29	-6
KEB하나은행	37	37	0
지방은행	192	189	-3
대구은행	5	5	0
부산은행	177	174	-3
제주은행	1	1	0
경남은행	9	9	0
외인지점	3	2	-1
야마구찌은행	1	1	0
중국공상은행	1	1	0
메트로은행	1	0(철수)	-1
특수은행	116	113	-3
IBK기업은행	41	39	-2
NH농협은행	60	59	-1
SH수협은행	12	12	0
한국산업은행	3	3	0
비은행금융기관	1,482	1,450	-32
수출입은행	1	1	0
신탁회사 ²⁾	555	537	-18
자산운용회사 ³⁾	573	558	-15
상호저축은행	28	27	-1
신용협동조합 ⁴⁾	47	47	0
상호금융 ⁴⁾	22	24	2
새마을금고 ⁴⁾	140	140	0
우체국 ⁵⁾	116	116	0

- 주 1) 2022년 말 기준, 출장소 포함
- 2)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신탁계정을 신탁회사로 지칭
- 3) 자산운용사 펀드상품의 판매점포수
- 4) 조합수(본소 기준) 또는 금고수 기준
- 5)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체신 취급국 및 지방우정청 제외



INFO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

- 2007년 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년 04월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11월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울, 부산, 인천, 제주, 경기)
- 2009년 01월 : 해양·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 중심지 '서울' 지정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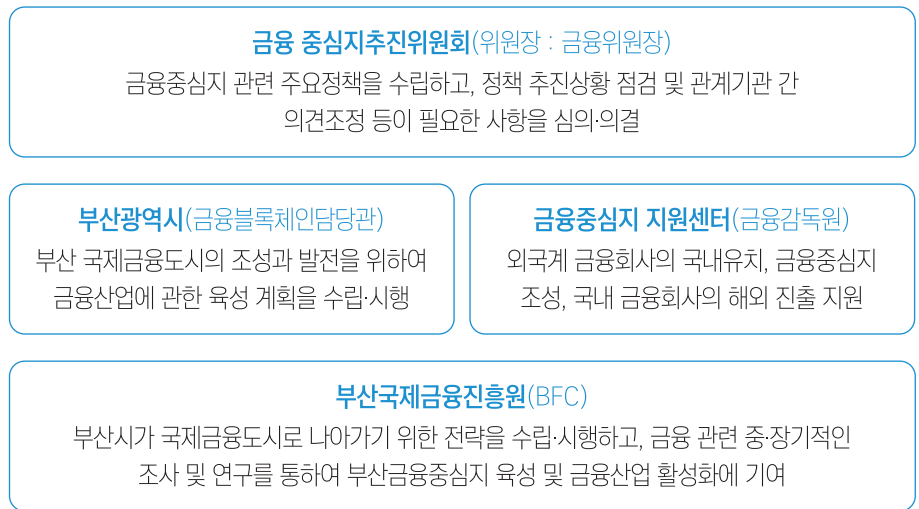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면적 : 102,352㎡
- 복합 사업개발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토지면적	24,856㎡	12,276㎡	10,292㎡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생활시설
건축규모	197,169㎡, 지하 4층, 지상 63층	183,132㎡, 지하 7층, 지상 49층·36층(U자형 2개동)	147,000㎡ 45층
사업기간	2008. 4 ~ 2014. 6	2015. 8 ~ 2018. 11	2020 ~ 2025(예정)
개발현황	2014. 12월, 입주완료	2018. 12월, 입주완료	-

- 개별 사업개발

구분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지하1층, 지상 4층	지하3층, 지상 23층
착공/준공	2009. 02 / 2011. 05	2011. 01 / 2013. 06	2011. 12 / 2014. 07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도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주요 일지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2009년 7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 플랜 용역 실시
- 2010년 8월, 부산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분야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0. 5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 2014년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복합개발사업(63층) 준공
※ 준공식 : 2014. 8. 22
- 2014년 말,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이전공공기관(5), 지역기관(3), 해양금융기관(4), 개별기관(3)
- 2015년 4월, 2020년까지 총 4개*부문 12개 과제 단계별 추진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 국제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금융 중심지 기본환경 조성)
- 2015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 2018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준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출범
- 2021년 5월, 국제금융네트워크 'FC4S' 정식회원 가입
- 2022년 3월,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착공

•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성과

- <해양금융부문>**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년 10월)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년 11월)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년 11월)
 - 한국해양보증보험 보험업 인가(2015년 6월)
 - 캠코선박운용 부산이전(2015년 6월)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년 4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 <파생금융부문>**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년 2월)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년 3월)
 - 금거래소 개소(2014년 3월)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년 1월)
 - 청산결제본부 출범(2021년 5월)

• 지역 내 금융관련 전문인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2014년 9월)

• 국제 금융관련 교육연구기능 확충

-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소(2016년 9월)

•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외 이미지 제고

- 매년 2회 유럽·북미·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IR 실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 ▷ IOMA(세계오퍼선시장협회) 총회 : 2013. 5. 5. ~ 7. 파라다이스호텔
 - ▷ FIA(국제선물산업협회)컨퍼런스 : 2013. 6. 12. ~ 13. 파라다이스호텔
 - ▷ ACSIC(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총회 : 2013. 11. 12. ~ 14. 조선호텔
 - ▷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 2015. 3. 26. ~ 29. 백스코
 - ▷ FATF/APG(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 2016. 6. 18. ~ 24. 파라다이스호텔
 -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 2018. 5. 21. ~ 25. 백스코

• 금융 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 중심지 내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과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정

*법인세 또는 소득세 : '23. 12. 31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2항),

취득세 : '23. 12. 31까지로 연장(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감감(부산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제3조)

BIFC 입주기관 현황

2023.4월 기준

• 63층 메인빌딩

63층	한국씨티은행	2명
	BMI 그룹	1명
	요즈마그룹 코리아	1명
62~56, 55, 51~50층	한국거래소	496명
55층	IBK창공	20명
53층	캠코선박운용(주)	15명
	자금세탁방지위원회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13명
	신한은행	5명
	부산국제금융연수원	2명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7명
	코스콤 부산센터	2명
	대한상사증재원 이태해사 증재센터	2명
40~47, 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610명
63, 54, 39~36, 5층	한국예탁결제원	395명
30~35, 4층	한국남부발전	482명
27~23, 13~12, 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680명
22층	KDB산업은행	23명
22~21, 9층	부산테크노파크	32명
21층	한국무역보험공사	13명
20층	한국수출입은행	40명
19, 11~10, 6층	주택도시보증공사	440명
14층	신용보증기금	50명
9층	부산은행	6명
	한국증권금융	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명
8층	비스페이스	80명
2층	NH농협은행	10명
	우리은행	12명
	HF 보증자리 어린이집	
	푸른바다 어린이집	
1층	BIFC 어린이집	

• IFC부산

11층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5명
7층~10층	한국자산관리공사	149명

• 독립건물

기술보증기금	지상 15층, 지하 2층	331명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상 4층, 지하 1층	71명
부산은행	지상 23층, 지하 3층	933명

BIFC 인센티브 제도

■ 외국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국외 ▷ 부산)		(시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1) 2)}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³⁾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⁴⁾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⁴⁾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기관당 10억원 이내)			

■ 국내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 창업	지역본부/지점 신설	본사이전	지역본부/지점 이전
				(시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1) 2)}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³⁾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⁴⁾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자-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⁴⁾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기관당 10억원 이내)			

※ 근거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 2)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 의거)
-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
-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inside 부산금융」 발간 목록



Vol. 1 2012년 5월(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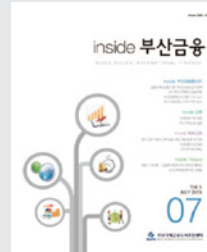
Vol. 2 201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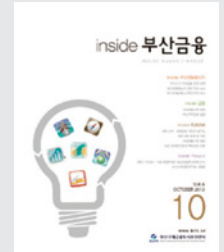
Vol. 3 2012년 12월



Vol. 4 2013년 4월



Vol. 5 2013년 7월



Vol. 6 201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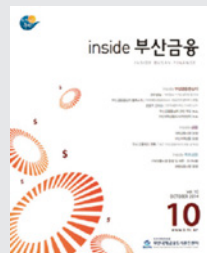
Vol. 7 2014년 1월



Vol. 8 201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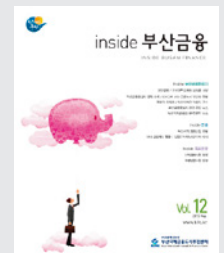
Vol. 9 2014년 7월



Vol. 10 2014년 10월



Vol. 11 2015년 1월



Vol. 12 2015년 5월



Vol. 13 2015년 8월



Vol. 14 2015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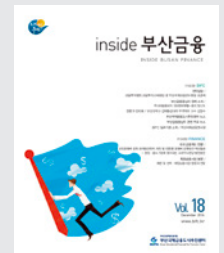
Vol. 15 2015년 12월



Vol. 16 2016년 6월



Vol. 17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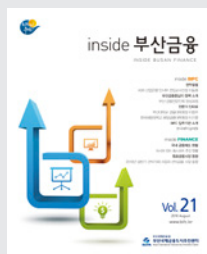
Vol. 18 2016년 12월



Vol. 19 2017년 8월



Vol. 20 201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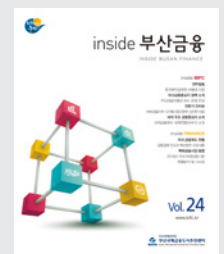
Vol. 21 2018년 8월



Vol. 22 2018년 12월



Vol. 23 2019년 10월



Vol. 24 2019년 12월



Vol. 25 2020년 12월



Vol. 26 2021년 6월



Vol. 27 2021년 12월



Vol. 28 2022년 6월



Vol. 29 2022년 12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In 2030, Busan will be a city for the world.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For centuries, the city of Busan has been a beacon pointing the way forward for Korea.
Now, Busan aims to take a greater leap and become the financial hub of Asia with
World EXPO 2030 and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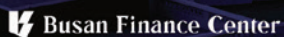
63rd Floor, the Apex of BIFC

Busan Metropolitan City offers up to 25 years of free long-term lease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on part of the top floor (63rd) of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

- Total 521m² of office space available for rent on the 63rd floor of BIFC
- Lease contract renewed every three years after evaluation, for up to 25 years

There are also attractive incentive packages including tax exemption and subsid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kbfc.or.kr/eng
and 3D virtual tour for 63rd free office <https://my.matterport.com/show/?m=czPqrpCjJ7e>



Contact info@kbfc.or.kr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47-9052 FAX. 051-633-0398 www.kbfc.or.kr